천사론 연구

(칼빈을 중심으로)

指導 최 태 영 敎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11월

영 남 신 학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류 시 완

류시완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 _____

副審 _____

副審 _____

영 남 신 학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2003년 11월

謝　　辭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신학과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최태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3년간 지도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못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후원해 준 아내와 두 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1월 28일

제출자　류시완

- 목 차 -

Ⅰ. 서 론 ····· 1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C. 연구사 ····· 2
D. 연구의 효과 ····· 4

Ⅱ. 천사의 존재 ····· 5
A. 천사 창조와 목적 ····· 5
B. 천사의 명칭과 계급과 수와 모양 ····· 8
C. 수호천사 ····· 10

Ⅲ. 천사의 사역 ····· 11
A. 성서에 나타난 천사의 이해 ····· 12
1. 구약시대 ····· 12
a. 용어 ····· 12
b. 족장전승과 설화에서의 천사 ····· 13
c. 성문서 및 묵시적 예언서의 천사 ····· 14
2. 포로기 이후 시대 ····· 16
3. 신약시대 ····· 17
B. 하나님과 천사의 사역 ····· 20

1.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 ····· 20
2. 하나님의 사역을 관찰하며 기뻐함 ····· 21
3. 천상회의의 참석과 봉사 ····· 21
C. 예수님과 천사의 사역 ····· 22
1. 수태고지와 출생 및 피난예고 ····· 23
2. 광야시험과 겟세마네 기도 도움 ····· 23
3. 부활 선포와 재림 예언 ····· 24
4. 재림 동행과 심판 ····· 26
5. 찬양과 예배 ····· 27
D. 기타 천사의 사역 ····· 28
1. 성도와 교회 ····· 28
a. 선민의 형성과 교회창설 ····· 28
b. 봉사와 계시 전달 ····· 29
c. 기도 응답과 전도 협력 ····· 31
d. 성도의 보호와 구출 ····· 32
e. 죽은 영혼을 인도함 ····· 34
2. 국가 ····· 36
3. 불신자와 마귀 ····· 38
E. 사역총평 ····· 39

Ⅳ. 천사와 마귀 ····· 41
A. 마귀의 존재와 기원 ····· 42
B. 창6: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논쟁 ····· 44

1. 타락한 천사설 ····· 45
2. 경건한 셋의 후손설 ····· 49
3. 비판 ····· 54
C.마귀의 활동 ····· 56
D.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는 마귀 ····· 58
E. 마귀의 최후 : 패배와 심판 ····· 61

V. 천사론의 유익 ····· 62

VI. 결 론 ····· 68

참고문헌 ····· 72

Ⅰ. 서 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신·구약성서에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등 천사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과 천사들의 사역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서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한 연구나 문헌, 천사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마다 등장하는 천사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천사론을 연구하게 된 동기이다.

천사론은 성서의 중요한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천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유익과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위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연구함으로써 신앙의 경각심을 깨우치고자 한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천사의 존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며, 다양한 천사들의 사역과 활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관계와 영향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와 정체를 밝히고 경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4장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기타 문헌들을 참고하여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와 성도에 대한 천사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마귀의 존재와 정체, 활동들을 고찰한 후 천사에 대한 믿음의 유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천사의 존재론적인 것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 치중하여 연구하려고 하며, 천상의 영계를 그룹, 스랍, 정사, 권세 그리고 천사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영계를 천사라는 범위 안에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C. 연구사

초대교회는 천사들의 본질에 관하여 어떤 명확한 교리를 세우지 않았으나 교회가 천사들의 존재를 주장했으며, 또한 천사들의 일의 성격을 인간들의 구원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1] 그리고 선한 영과 악령들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초기 기독교 저자들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로마의 클레멘스, 이그나티우스, 헤르마스 등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의 무리들에 관해 가르쳤고, 천사들의 심판과 수호천사들을 가르쳤다.

---

1)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8). p.634.

변증론자들인 유스티니아누스, 타티아누스, 아테나고라스, 이레니우스 등은 타락한 천사와 귀신, 영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루었다. 특히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의 천사론을 많이 다루었다.

희랍교부들(오리게네스 등)은 국가와 도시들 혹은 개인의 수호천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후기 희랍의 저술가들은 천사들의 본질과 기능에 관하여 많이 언급했다. 라틴 교부들은 선하고 악한 영들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후기 라틴 교부들(암브로시우스, 제롬)은 천사들이 물질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있으며, 천사들은 무형적 실체인 영들, 즉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감각적이며, 이성적이고, 지적이며, 불멸적인 것"이라고 했다.[2]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며, 우리를 감독하고 사랑하며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인들에게 수호천사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했다.[3]

성상파괴 논쟁을 다룬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에서 천사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천사들이 모두 무형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얇고 가벼우며 혹은 불과 같은 몸을 가졌다는 견해를 가졌다. 한편 디오니시우스는 천사들의 계급조직과 기능에 관한 이론을 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디오니시우스의 견해를 계승했으며, 천사의 9개의 서열을 인정하였다.

A.D 800년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인 중세시대에는 선한 영과 악령들의 본질에 관한 고찰이 스콜라신학자들의 기록들에서 계속 발견되었다. 이 고찰

---

2) Ibid., p.636. 재인용.

3) Ibid.

들은 대부분이 성서의 진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 디오니시우스의 조직적인 구분에 대한 중세적인 변증으로 된 것들이다.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베르나르두스, 안셀무스 등은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완전히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콜라적 교리의 분명한 입장은 토마스아퀴나스에 의해 완성되었다. 영들의 본질에 대한 발전적인 형태의 스콜라학자들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 동안 천사숭배의 발전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 천사들을 축하하는 축일도 제정되었다.

종교개혁시대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한 영들이 인간을 위해 중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금하였다. 성서에 근거한 이 신앙은 다른 방향들에서 다양한 많은 이성주의의 공격이 일어난 18세기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19세기의 시작은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 "철학적이며 이상화시키는 의미로" 표현된 천사를 믿는 신앙이 부흥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성공회에서 천사를 믿는 신앙은 완전히 전례적으로 인정되었다.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는 일부 카톨릭 신학자들에 의하여 옹호되었다. 종교개혁이후 개신교에서는 많은 교훈 중에 천사들에 대한 주장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신화론으로 간주되어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4]

D. 연구의 효과

천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천사의 사역과 활동, 마귀의 존재

4) 기독교대백과사전, p.634-643 참조.

와 활동을 분명히 깨닫게 됨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삶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들의 도움을 인식함으로써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Ⅱ. 천사의 존재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기 전에 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경이 도처에서 천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 연구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A. 천사 창조와 목적

칼빈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시103:20-21)[5] 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피조물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저들 천사에 대해서는 사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천사 창조의 시간과 순

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권 14장 4절.

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완고한 증거라고 했다.

천사들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것처럼(시148:1-2;시33:6;느9:6;시8:1,3-5;욥38:4-7)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고 "비록 천사들도 우리처럼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창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보다 더 오래되었고, 또한 더 큰 위엄을 갖고 있었다."[6]

언제 천사들이 창조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성경도 그것에 대하여 암시를 주지 않는다. 다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욥기 38장4-7절에서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가리키며,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음을 확증해준다. 토마스아퀴나스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천사들은 만물처럼 무에서 창조되었으며, 우주와 함께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그들의 처소로 가지게 되었다.[7] 또한 천사들은 모두 무형적이며,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사들은 완전성에 있어서 유형적인 존재들을 능가하는 것과 같이 수에 있어서도 그들을 능가한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며, 천사들은 공기와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생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동시에 한

---

6) Al Lacy, 『천사는 있다』 정동수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p.23.

7) Summa, G.달사쏘-R.꼬지 편찬. 이재룡 외 역『신학대전 요약』(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p.83.

장소 이상의 장소에 나타날 수 없다.[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사용하시는가? 굳이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칼빈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은 필연성에 의해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천사들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9]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구약의 많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 인간을 돕는자로, 후견인으로, 인도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10]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보호자에게 명령하여

---

8) Ibid., p.75-77 참조.

9) 기독교강요, 1권 14장 11절.

10) 예를 들면, 단10:13;눅15:7;왕하6:17;행12:15.

우리의 안전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신29:13;히1:14;왕하6:17).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 하신다"[11]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아닐 수 없다.

B. 천사의 명칭과 계급과 수와 모양

성서에 의하면 천사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자'(창18:1;32:2,8;수5:14;삿6:14;13:10,22), '천군'(눅2:13), '권세'(엡1:21;고전15:24)로 불리기도 하며, 때로는 '정사', '주관하는 자'(골1:16;엡1:21;고전15:24)로 불린다. 또한 '보좌'(골1:16), '신들'(창22:11-22)이라는 명칭이 천사들에게 적용된다. 칼빈은 이와 같은 명칭들이 천사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중재의 사자로 사용하시기 때문"[12]이라고 한다.

한편 성서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단8:16;눅1:19,26), 미가엘(단10:21)이다. 칼빈은 여기에 토비트의 역사에 나오는 천사의 제3의 칭호 '라파엘'이 있다고 하면서(토비트12:15) 이 명칭들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로 보아 우리의 능력의 약함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생각된다고 했다.[13]

---

11) 기독교강요, 1권 14장 11절. "칼빈은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라고 선언하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고 했다.

12) Ibid., 1권 14장 5절.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 칼빈은 단호하다. 천사의 수와 계급을 결정짓는 이들[14]을 향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누가 성경의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각 천사들을 그 칭호로 구별 지으며 그 위치와 지위를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겠는가?"[15] 그래서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결로 남겨 두기를 원하고 있다.[16]

천사의 수에 대해서 칼빈은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마26:53), "천천이요... 만만이며"(단7:10),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왕하6:17),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시34:7) 등의 성서 구절을 통해 그 수가 막대하다고 했다.[17]

---

13) Ibid., 1권 14장 8절.

14) Ibid., 1권 14장 6절, 각주 재인용. Origen은 천사장 라파엘, 가브리엘 및 미가엘에게 특별한 직분이 있다고 했다.

15) Ibid., 1권 14장 7절.

16) Ibid. 재인용. Origen은 천사장 라파엘, 가브리엘 및 미가엘에게 특별한 직분이 있다고 했다. De principiis Ⅰ.viii. 1(GCS 22. 228; MPG 11. 176; tr. ANF Ⅳ. 264.; Butterworth, Origen On First Principles, pp. 193f.). 천사들의 계급과 여러 직능을 서술함에 있어서 중세 신학은 Pseudo-Dionysius의 영향을 받았으나, Calvin은 그 권위를 배척했다. 참고 : Lombard, Sentences Ⅱ. ix(MPL 192. 669), Aquinas, Summa Theol. Ⅰ. cvi-cxiv. Calvin은 기독교강요 14장 8절에서의 초두와 말미에서와 같이 Aquinas가 천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공상적으로 다룬 것을 통박했다. 천사들의 직제와 수호신들에 관해서는 Summa Theol. Ⅰ. cviii, cxiii을 참고할 것.

17) Ibid., 1권 14장 8절. 칼빈은 시34:7절 주석에서 많은 천사들이 각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임명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천사의 수나 계급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칼빈은 여기에 대해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해두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가, 너무 확신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8]

C. 수호천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칼빈은 확언하지 않는다. 칼빈은 다니엘이 페르시아인들의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할 때(단10:13,20;12:1), 특수한 천사들이 왕국과 지방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뵈옵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마18:10),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탁받은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하여 칼빈은 아는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19]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천군 천사가 자신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 천사가 자신의 특별한 수호자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18) Ibid., 1권 14장 8절.

19) Ibid., 1권 14장 7절.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지 알 수 없다"[20]고 단호히 말한다.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 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자들은 저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온 회원들에게까지도 큰 부정을 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우리를 사방에서 후원하며 보호하는 원군들과 함께 보다 더 용감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무익한 약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수호천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21]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각 사람은 자기 수호천사에 의해 보호되며, 각 사람은 수호천사를 탄생 첫 순간부터 가지며, 천사들의 수호는 신의 섭리 질서의 수행에 속한다"[22]고 말하고 있다

Ⅲ. 천사의 사역

칼빈에 의하면 천사의 사역은 다음과 같다.

> 천사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가리켜 주고 따라서 어떠한 재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준다고 상기시킨다.[23]

---

20) Ibid.

21) Ibid.

22) Summa, G.달사쏘-R.꼬지 편찬. 이재룡 외 역『신학대전 요약』(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p.128.

23) 기독교강요., 1권 14장 6절.

이러한 천사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천사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먼저 성서에서는 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A. 성서에 나타난 천사의 이해

1. 구약시대

a. 용어

구약에서 천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는 'מלאך'(말라크)로써 '사자'(messenger), '사절'을 의미한다. 족장들과 왕들의 이야기에서 볼 때, 그러한 사자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24]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둘째, 특별한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 셋째,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대적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는 것, 넷째,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죄인과 완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쏟는 도구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

24) 기독교대백과사전. p.628.

'מלאך'(말라크)는 심부름꾼에게도 종종 적용되고 있다(창32:4).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시104:4). 어느 경우 '엘로힘' 자체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창6:2;욥1:6). 시89:8절 및 욥15:15절의 경우에서는 거룩한 자들이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 단순히 인간으로 불려질 때도 있다(창18:2;16:19). 그러나 야곱과 씨름했던 신비의 존재는 인간이라 불리웠다가 또 엘로힘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운 경우도 있다(수5:14). 그러나 구약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야훼와 말라크가 결합된 형태인 'מלאך יהוה'(말라크 야훼)이다.[25]

b. 족장전승과 설화에서의 천사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옛 신앙 속에서 천사는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친근하고 호의적인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도록 한 것은 천사였고(창22:11),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자도 천사였다(창31:11). 천사는 이스라엘의 적을 격퇴하며(왕하19:35),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으며(출14:19), 이외에도 이스라엘이나 신앙 영웅들 편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해 준다.[26] 천사는 손님의 모습으로(창18장) 나타나기도 하나 대부분 전사의 모습으로(창32:1이하;수5:13) 등장한다. 이것은 천사의 중요성이 전쟁과 관련되어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천사의 속성이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이해

25) 창16:7,9;22:11,15;31:11;출3:2,4;삿2:1;6:11이하.

26) 출23:20-23;33:2;삿6:11이하;13:3이하;왕상19:5;왕하1:3,15;19:35).

되었고(삼상29:9;삼하14:17;19:27), 지상의 모든 일을 아는 자로(삼하14:20), 그리고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 자(시78:24-25)로 이해된 것은 이처럼 옛 전승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스라엘에 호의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c. 성문서 및 묵시적 예언서의 천사

성문서의 경우에는 천사에 관한 언급이 많지 않다. 대체로 시편에서 천사는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27] 시91:11-12에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신자들을 구할 것을 명령하신다. 특이하게도 욥기는 천사를 가리켜 '거룩한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8] 그러나 욥기는 이 거룩성을 제한하고 있다. 천사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순수치 못하다(욥4:18;15:15). 천사들은 창조의 증인으로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욥38:7). 사람들은 필요할 때 천사를 찾을 수 있다(욥5:1). 천사들 중의 어떤 천사는 중재자로도 나설 수 있다.

천사에 관한 언급이 족장 설화와 역사설화에는 제법 나오는 반면에 포로기 전의 예언서의 경우에는 천사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포로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시기의 언급의 경우로서는 학개가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학1:13)라고 부르는 예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말라크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예언자

27) 시29:1;103:20-21;148:2.

28) 욥5:1;15:15; 시89:6,8; 단8:13.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말3:1-2의 '계약의 말라크'는 본문상으로 볼 때 비록 그것이 엘리야의 복귀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천사로 이해될 수 있다.

구약에서 천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문서는 에스겔과 스가랴 및 다니엘이다. 포로기 이후의 묵시적 작품인 이 두 예언서와 다니엘서는 천사론이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포로기 이후임을 알려준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장에서 '하얏트'라고 불리우는 생물에 의해 둘러싸여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8-11장은 그 생물들을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다. 9장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작업이 여섯 명의 무장한 자들에게 위임된다. 그러나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자는 이마에 표가 있는 의인을 구원하는 일을 맡는다. 10장에서는 이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케루빔 사이에서 불타는 숯불을 집어 도시를 태우려 하는 모습이 나온다. 11-39장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40-48장의 성전재건 환상에서 에스겔은 '놋같이 빛나는 사람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듯 천사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온다.

스가랴의 경우에서 천사는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가 본 상징적 환상들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천사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는 점이다.[29] '주의 천사'라는 말은 여러 번 언급된다.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한다(1:12-13). 그는 여호수아의 복직을 심사하고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사탄을 견책한다(3:1이하). 스가랴는 대부분의 경우 천사들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서를

29) 슥1:9,14;2:1-7;4:1-5;5:5-10;6:4-5.

통하여 볼 때 천사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초의 경우는 스가랴이다. 다니엘에 나타난 천사는 풀무에서 세 젊은 친구를 구해낸다(단3:25,28). 또한 사자의 위험 속에서 다니엘을 구해낸다(단3:25,28). 역시 때때로 천사는 사람으로 불리운다. 어떤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단10:5;12:7).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수많은 수종자들이 있다(단7:10). 다니엘서는 경외전적 묵시서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천사에 관련된 서술들은 색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 역시 상징적 환상인데 천사가 이를 해석해 준다(7,8장). 다니엘에 이르러 비로소 이름을 지닌 천사가 등장한다. 가브리엘(단8:10;9:21), 미가엘(단10:13;12:1)이 그들이다.

구약성서에서 천사의 이름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다니엘이 유일하다. 또한 각 민족은 각자 나름대로의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도 다니엘서에만 특징적이다. 즉 다니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호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단10:13,20).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는 미가엘이 소개된다. 유대전통에 있어서 천사에 대한 신앙은 다니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포로기 이후 시대

천사에 관한 이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의 체계적인 교리로 발전해 나갔다. 위경 및 외경과 사해사본들을 통하여 그 때부터 발전된 유대교의 천사론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천사론이 발전될 수 있었

던 내적인 이유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30]

첫째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어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중재적 존재로서의 천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전시대에서는 위대한 예언자들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마지막 날들과 인간의 미래 등은 오로지 천사의 중재를 통하여서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예언자나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 대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설명한다.

천사론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종파는 쿰란 종파이다. 그들에게서 일곱 대천사의 천상적 임무가 기록된 천사 예배서(Angelic Liturgy)까지 발견된다.[31] 바리새이즘에서 비롯된 랍비적 유대교는 천사에 대한 신앙문제에 있어서 관대성을 보여 주었으나 지나친 과장은 반대했으며 구약의 개념에 충실함으로써 천사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관계지워 주려고 노력했다. 근본적으로 유대교의 천사론은 이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의 관련성을 상실하지 않음으로써 천사의 위치를 하나님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견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3. 신약시대

---

30) 고덕신, "유대적 기독교의 천사 기독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p.36-37 참조.

31) Ibid., p.40 재인용.

천사라는 의미의 영어 'angel'은 '사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ἀγγελος'(앙겔로스)에서 파생되었다. 신약의 천사이해에서 우선 특징적인 것은 인간적 의미에서의 '사자'라는 뜻이 'ἀγγελος'(앙겔로스)에서 현저히 후퇴한 점이다. 앙겔로스가 사자를 의미하는 것은 두 경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32] 신약에서는 'ἀγγελος'(앙겔로스)가 인간적 의미에서의 사자를 가리키지 않고 천사라는 종교적 의미로 고착되었다. 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보내었던 사람'(눅7:10)이나 '보내심을 받은 자'(눅19:32)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신약의 천사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구약과 유대교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특히 후기 유대교의 외경과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을 인간에게 전달한다.[33]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다(히1:14). 하늘의 세계를 대표한다.[34] 옛 계약의 율법은 천사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졌다.[35] 천사는 죽은 자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한다(눅16:22).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마28:3;눅24:4). 천사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눅2:13;계4:9).

천사에 대한 이상의 신약의 이해는 명백하게 외경의 이해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천사가 지닌 결정적인 모습은 그것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으며 기독론과 암시적인 대결을 벌이고

---

32) 눅7:24;9:52.

33) 마1:20;2:13,19;눅1:11,26;2:9이하;행8:26;10:3;27:23;계1:1.

34) 마22:30;눅12:8;엡3:15;딤전5:21;히12:22;벧전3:22.

35) 행7:53;갈3:19;히2:2.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신약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사 혹은 인자의 천사로 흡수되어 예수의 생애와 종말론적 역할의 동반자로 소개되고 있다.

사도시대에 이르러 천사는 사도들의 편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영으로 이해되었다(행5:19;12:7).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천사의 역할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이해와 다를 바 없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선포한다(8:26;10:3이하;27:23). 교회의 적에게 징벌을 내린다(12:13). 핍박으로부터 사도들을 구한다(12:6이하).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의 역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구속의 역사를 위한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천사가 예수의 생애와 종말론적 활동에 관련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천사론이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론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문제가 골로새서의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골2:18)고 경고할 만큼 심각한 양상도 드러내었다.

결국 신약에서 천사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종'(계19:10)과 '섬기는 영'(히1:14)으로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받들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제 올 세상은 천사의 지배 아래 놓이는 세상이 아니다(히1:14). 그리스도는 모든 권위와 세력과 능력과 천신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고전15:24). 이 구절들은 신약의 전통적인 천사이해로부터의 해방과 천사론에 대한 기독론적 극복을 동시에 암시해 준다.

B. 하나님과 천사의 사역[36]

1.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시29편;시148:1-2)

시편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거나 명령하고 있다. 찬양의 주체로는 인간, 자연, 온 우주를 포함한다. 그 가운데 천사도 예외는 아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사자'나 '군대' 라는 이름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천사를 언급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시103:20). 따라서 모든 피조물과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시29:1-27).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욥기 1장과 2장 및 38장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천사들에게 붙여진 호칭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까닭에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36) 김호식, 『천사론 하나님의 사역자』(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8), p.179 -185 참조.

2. 하나님의 사역을 관찰하며 기뻐함(고전4:9;단4:13;욥기38:6-7;눅15:1-32)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다. 욥기38:1-6절 사이에서 이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도량을 정하시고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우시는 등의 일을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목격하고 있다가 그 장엄함에 놀라 이들이 모두 "노래하며...기쁘게 소리 하였었다"고 했다(욥38:7).

한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상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천국에서는 굉장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고 했다(눅15:10).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죄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기뻐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3. 천상 회의의 참석과 봉사(욥1:6,2:1;시130편)

여호와와 함께 앉아서 하늘과 땅의 일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신적인 존재들의 회의나 회합의 개념이 구약의 언어와 비유적인 표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렘23:18;시89:7;욥15:8;29:4). 이 신적인 회합이나 천

상회의는 시29:1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신적인 존재들'이라는 말로 언급되기도 한다.[37] 욥기에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다고 말한다(욥1:6;2:1). 이때 사탄은 일종의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논쟁을 벌렸는데, 이 사건에 천사들이 참석하여 참관자로 보고 있었다.

시편 기자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시103:20,21)고 했다. 21절에 언급된 천군이란 천사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모든 존재들, 즉 그룹이나 스랍 등 하늘에 있는 영계의 무리 전체에 붙여진 호칭으로 이 모든 존재들은 다 하늘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자들이다.

C. 예수님과 천사의 사역

천사들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는 바로 자기들의 왕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에 대한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7) 기독교대백과사전. p.647.

1. 수태고지와 출생 및 피난예고(마1:20;눅1:26-35;마2:13)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를 나을 것을 예고해 주셨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흠모했으므로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왕좌를 떠나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기에서도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했고, 그 분께 찬양을 드렸다. 천사들은 단 한번도 예수께 높은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38]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인 지구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신 사건은 창조 이래 처음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영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 불가사이한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에 천사들을 직접 관여시켜서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39]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직접 관련되었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성장에도 관련되어 그의 신상에 위험이 다가올 때 이를 경고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후환을 없애려 했을 때 이 헤롯의 계획을 천사가 미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고함으로 애굽으로 피난할 수 있게 도왔다.

2. 광야시험과 겟세마네 기도의 도움(마4:11;눅22:43)

---

38) 알레이시, p.191-192.

39) 김호식, p.186.

마태복음 4:1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3차에 걸친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고 했다. 40일을 금식하셨고, 사탄과의 3번에 걸친 대결을 하셨던 예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 계셨을 것이다. 이런 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타나 시중들었다고 한 것은 육신을 지탱하는 일이나 심령의 곤고함을 막는 일 등 실제로 모든 면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잘 알아서 시중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40]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둠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고통스러워하셨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몸은 온통 땀으로 적셔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단 한명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함께 갔던 3명의 제자들마저도 잠만 잤다(마 26:40).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도왔던 것은 오직 천사뿐이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눅22:43). 순전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죄 없으신 분의 임박한 죄의 잔의 고통과 무서움을 보며,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고통을 보면서 천사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잔을 마시도록 내적인 힘을 주었던 것이다.[41]

3. 부활 선포와 재림 예언(마28:2;5-8;눅24:1-5;행1:10-11)

---

40) 김호식, p.188.

41) 알레이시, p.195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물질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하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문이 닫혔거나 열렸거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으셨다. 따라서 무덤 문을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 마태의 기록에는 무덤의 돌을 옮기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혔다가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무덤을 떠나신 후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천사들이 동원되어 무덤의 돌을 옮겨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마28:2-3).

누가는 무덤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한다(눅24:4). 천사들은 무덤의 돌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예수의 부활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렸다. 누가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42]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도 천사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10절에는 천사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으나 그 상황이 천사 이외에 다른 사람일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

42) 눅24:5-7

>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43]

비천한 말구유로부터 빈 무덤에 이르기 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천사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를 떠난 적이 없다. 여기서 천사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과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4. 재림 동행과 심판(마25:31;막8:38;살전4:16;살후1:6-8)

천사들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옹위해서 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구태여 보조역을 하는 천사들이 따라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은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옳게 분별하고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기 위함인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천사의 역할은 바로 하늘가에까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때에 모으는 것이다.

>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

43) 행1:10-11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44)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동서남북 온 천하 구석구석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 천사들은 이렇게 모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담당한다. 천사들의 이런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메시야 왕국을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이기도 하다(살전 1:6-8).

5. 찬양과 예배(계5:11-12;히1:6)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영계의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45)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44) 마24:29-31.

45) 히1:6.

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46]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십자가 후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관찰했고, 또 그를 돕는 사역을 했던 천사들은 십자가의 사역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다시 오셔서 메시야 왕국을 건설하시는 모든 준비 과정까지 그를 받들어 사역할 것이다.[47]

D. 기타 천사의 사역[48]

1. 성도와 교회

a. 선민의 형성과 교회창설(행1:10;5:19;7:30;8:26;10:3-22;12:8-12;12:23;23:9)

---

46) 계5:11-14.

47) 김호식, p.203.

48) Ibid., pp.203-241 참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통해 선민을 형성하시는 준비를 하실 때 천사들이 자주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생활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사실을 창세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창세기15:17-18;16:7-13;18:2-22;21:17-19;22:10-11;24:7-40). 그리고 야곱의 생활도 천사가 여러번 도왔으며(창28:12이하;31:11-13;32:1-30;35:9-10),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어 새롭게 선민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주시는 일에도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갈3:19;히2:2;출14:1이하;출13:21-22;16:10;32:34;33:12-18;34:9이하).

또한 천사들은 성령의 역사에 보조를 맞추어 복음 전도자들을 협조해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일을 도왔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명상과 묵상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나 천사들의 어루만지고 보호하는 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교회를 창설할 수 있었다.

b. 봉사와 계시전달(시34:7)

히브리서 1장 14절이 바로 수호하는 천사들(Guardian Angels)이라는 개념의 출처이다. 미국신학에는 천사론에 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수호천사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보편화된 단어이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1:14)라고 했는데 "구원 얻을 후사"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후사들"에게까지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했다. 여기서 "진을 쳤다"는 말과 "모든 천사"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둘 이상의 천사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렇게 천사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실을 알 때 안정감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계시를 전달해 주는 사명을 맡은 것은 가브리엘이다. 다니엘서나 누가복음에 계시의 전달자는 가브리엘이라고 언급됐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오다가 바사 국군에게 21일 동안이나 붙들려 있던 천사의 이름도 가브리엘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됐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어서 장차 탄생할 예수는 메시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이심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다(눅1:31-34).

또 요한계시록 1:1-2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전달자인 것을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1:1).

c. 기도 응답과 전도 협력(행5:19이하;12:5-7;단9:21;행8:26;10:3)

사도행전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는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주의 사자"라고 한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어성경 흠정역(King James Version)에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에 "The"라고 정관사가 붙은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an angel"이라고 번역되었어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정관사 "The"가 붙은 "The Angel of the Lord"(도성인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가 여러번 언급되어 있다.[49] 그러나 신약성경 즉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신 이후에는 정관사 "The"가 붙은 (The Angel of the Lord - 주의 천사 - 제 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에 관한 언급이 한번도 없다. 따라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한 존재는 분명히 천사였다.

헤롯 왕이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인 후에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사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이미 야고보를 잃은 예루살렘교회는 침통한 마음으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셨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사실이 다니엘 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천사는 또한 사도들의 전도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49) Ibid., p.228.

>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50]

천사는 빌립에게 남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자세하게 그가 가서 전도할 곳을 지시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용기를 가지고 복음증거를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이달리야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행10:4-6).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유한 집 위치까지 자세히 말해 줌으로 고넬료가 전도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준 사건이다. 초대교회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도왔던 천사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분주히 성도들을 돕고 있다.

d. 성도의 보호와 구출(고전4:9; 단3:24-28;6:22; 시91:11-12; 행5:19-23;12:7-11)

---

50) 행8:24-26.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천사들이 관찰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수난을 받을 때 자칫하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외로움과 낙망이 파도처럼 우리를 휩싸는 때가 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거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는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준 사실이 사도행전 27:23-24절에 기록되어 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천만 천사들도 우리의 수난 받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았던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겁게 타는 불속에서도 타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 속에서 나온 이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이들의 몸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천사가 이 세 사람을 보호할 때 멀리서 능력을 베풀어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천사 자신이 함께 풀무불 속에 있으면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했던 것이다. 사자굴에 던지웠던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다니엘6:22)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자기를 보호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구속함을 받았거나 앞으로 구속함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출하는 사역을 천사들이 담당하고 충성스럽게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알

아도 감각이 둔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e. 죽은 영혼을 인도함(눅16:22;유6)

천사들의 사역 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한 또다른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천국에 도착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버질이나 베아드리채 등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단테를 연옥이나 지옥에 또는 낙원으로 인도했던 것으로 쓰여 있으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 낙원에 간다고 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혼자서 천국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죽은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누가복음16:22). 누가복음 16:22절의 απενεχθηναι(제1 완전과거 수동태 동명사 αποφερω)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가만히 있으나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인도하여 낙원으로 안내했음을 의미한다.[51]

육신을 벗어버린 영혼이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되어 영화로운 몸을 가진 성도들도 처음 보는 천국에 갈 때는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처음으로 낯선 외국 땅에만 가려고 해도 두렵고 떨려서 동행자나 안내원

51) Ibid., p.223.

을 찾는 나약한 인간들임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셔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천군과 천사들도 동원되어 온 세계 각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유다는 영계에서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도다..."(유다서9-10). 모세의 시체는 모압 땅 벧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비밀리에 장사된 까닭에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신명기34:1-7).

유다는 신명기의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세의 시체 문제에 관해 영계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구두전승에 또는 정경이 아닌 다른 작품들 가운데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은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그 시체를 소유하여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셨다(유다서1:9). 모세의 시체 문제를 처리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자신의 권위나 위력에 의해 마귀의 힘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력과 계획에 의존하여 마귀의 힘을 억압할 수 있었고, 모세의 시체를 보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천사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시체라도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보호하여 인간들의 영역권 내에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게 조치한다.[52]

2. 국가[53]

천사나 악령들 그리고 사탄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역시 영계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역사의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수 있고, 병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전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다. 모든 품성적인 존재들은 물론 인류전체의 집합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관여(Providence)하시는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외에 세부적으로 특정한 국가나 민족 또는 집단의 운명을 지배하시고 관장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국가 및 인류의 역사를 관여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감시하게 하시고(단4:17;왕상5:7;10:9;대하9:8), 특정한 국가를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단10:21;12:1). 천사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역사의 일환으로 발전되고 존재하다가 멸절되고 또 새로운 국가의 발족, 멸절 등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변천 가운데 천사들이 직접 관련된 사실에 관해 다니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52) Ibid., p.228.

53) Ibid., pp.203-212 참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다니엘10:20-21).

이상에 인용한 구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인데 "바사군"(히브리어), "헬라군" 혹은 "너희 군 미가엘"이라고 한 "군"이라는 단어는 지배자 혹은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일 뿐만 아니라 너희군 미가엘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이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바사 나라(페르시아) 역사의 배후에서 이를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파사가 망한 뒤에는 헬라제국에 파송된 악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것이고, 후에 로마제국이 건설되면 로마제국의 배후에서 활동할 악령이 있을 것을 말한다. 물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파송 받은 천사는 미가엘이다.

이렇게 각 나라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다니엘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을 21일 동안이나 막고 방해했던 "바사국군"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바로 바사나라의 배후에서 바사나라를 주관하는 악령들임이 증거된다(다니엘10:12-13).[54]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천사들이 통치자들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한다. 통치자들은 역사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위대

54) Ibid., p.208.

한 지도자들의 득세, 치정 및 운명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현대의 중동지방 일대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능력으로 세계를 평정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여 그에게 꿈으로 이 사실을 계시하셨다(다니엘4:13-18).

느부갓네살의 꿈 중에서 "한 순찰자" 또는 "한 거룩한 자"란 영계의 존재들로 천사를 뜻하는 말이다. 천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다니엘4:17)고 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치자들을 일으켜 권좌에 앉게 하는 것이나 혹은 권좌에서 끌어내려 낮추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밝혀주고 있다.[55]

3. 불신자와 마귀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한다(창19:1-9;계19:17-18).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와 악이 충만했을 때 곧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 보면 7년

55) Ibid., p.212.

대환란 마지막 때 천사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예고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요한계시록19:17-21). 천사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심판을 가하는 일도 한다(창19:11;행12:23;계16:1;마13:36-43).

회개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 결국 심판을 수행했다.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충이 먹어 죽었는데 교만과 불경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처벌하셨던 것이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사도행전12:23).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는 7년 대환란 중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일곱 개의 대접을 차례로 쏟아 부어 이 세상에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일곱 천사들의 역할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지는 일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탄에게 집행하는 것이다(요한계시록20:1-2). 천사들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는 일을 할 것이다. 천사 자신들만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잡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7년 대환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이 이미 심판 받은 후에는 천사들이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 가능하다.

E. 사역 총평

성경 곳곳에서 천사의 다양한 활동과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천사 사역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시29편;시148:1-2)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관찰하고 기뻐하며(고전4:9;단4:13;욥기38:6-7;눅15:1-32), 천상 회의의 참석과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욥1:6,2:1;시130편)하는 활동을 한다. 즉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사들의 사역은 좀더 구체적이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것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에 대한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먼저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출생선포, 그리고 애굽에로의 피난을 예고했다(마1:20;눅1:26-35;마2:13).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시험 후에 지쳐 있었을 때 나타나 수종들었으며(마4:11), 공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했다(눅22:43). 십자가 죽음이후 부활을 선포했으며, 재림을 예언했다(마28:2;5-8;눅24:1-5;행1:10-11). 재림시 동행하며, 심판을 수행하고, 새하늘과 새땅에서 어린양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계5:11-12;히1:6).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선민을 형성하고, 교회 창설을 도왔으며(행1:10;5:19;7:30; 8:26;10:3-22;12:8-12;12:23;23:9),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며, 계시의 전달자로 사역했다. 그리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였으며, 전도에 협력자로 활동했다(행5:19이하;12:5-7;단9:21;행8:26;10:3). 또한 성도들을 고난과 핍박과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키며, 보호하는

일을 감당했으며(고전4:9;단3:24-28;6:22;시91:11-12;행5:19-23;12:7-11),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하여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눅16:22;유6).

국가와 관련하여 하나님께는 천사들을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감시하게 하시고(단4:17;왕상5:7;10:9;대하9:8), 특정한 국가를 보호하시기도 하셨다(단10:21;12:1). 불신자와 사탄에 관련하여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고(창19:1-9;계19:17-18), 하나님의 심판을 사탄에게 집행한다(계시록20:1-2).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천사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회와 교회 밖의 불신자나 사탄 등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천사의 사역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닌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천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역자로서 성실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과 안위감을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교훈해주고 있다.

Ⅳ. 천사와 마귀

천사론에서 마귀에 대한 연구는 전혀 다른 분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천사론에서 마귀에 대한 언급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마귀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마귀의 존재와 기원을 살피는 가운데 논쟁점을 알아보고, 마귀들의 활동과 그들의 최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 마귀의 존재와 기원

칼빈은 마귀의 존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마귀와 관계해서 사용한 용어는 "마귀"(diable)와 "사탄"(Satan)이며, 그리고 귀신을 혼재해서 사용했다. 드문 경우이지만 "악마"(Malin), "악령"(esprit mauvais, 또는 esprit malin), "더러운 영"(esprit immonde, 추잡한 영) 등의 용어를 쓰기도 했다. 칼빈은 이 용어들의 구별이나 구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같은 종류나 부류로서 파악했다. 다만 칼빈이 마귀를 복수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마귀가 하나가 아니라 수적으로 많은 존재임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때로 복수와 단수의 구별을 통해, 마귀의 통치나 질서를 나타내고자 했다. 즉 단수로 사용될 때는 마귀들의 전체 왕국 즉 "불의한 통치"를 의미했고, 복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인 마귀들을 뜻했다. 또는 경우에 따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56]이라고 함으로써 위계질서와 함께 그 수적 구성의 다양성을 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우리가 싸우는 마귀가 하나이거나 혹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매우 많은 다수"인

56) 기독교강요, 1권 14장 14, 19절.

이유는 우리를 "더욱 민감하게 자극해서 경고하기 위한"[57]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에 따르면 마귀는 '현재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영으로서, 거짓과 악한 술수와 간계로써 인류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류의 악한 적'이라고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의미에서 칼빈은 마귀를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자'이고 '원수'[58]라고 말하기도 했다.

칼빈에 의하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인가?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를 피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칼빈은 마귀가 사악한 것이 "첫번째 창조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한다.[59] 즉 칼빈은 하나님이 악의 저자라는 오해나 비난을 불식시키고자 마귀의 본성을 그것 자신의 타락에다 돌렸던 것이다.[60] 그러나 칼빈은 마귀의 타락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나, 어떤 호기심에 근거한 추론은 거절했다. 즉 마귀들의 타락이나 타락의 원인, 방법,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는 성서와 함께 침묵했다.

그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관계없거나 거의 없는 것이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에 대해 침묵하거나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일이다."[61] 그래

---

57) IbId., 14절

58) Ibid., 15절

59) Ibid., 15절

60) Ibid.

61) Ibid.

서 칼빈은 마귀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밝혔다. "... 그것들은 처음 창조시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기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써 그것들은 파멸되었고, 영벌의 도구가 되었다."[62]

칼빈은 마귀의 기원에 관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악한 본성의 기원은 그것이 타락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즉 마귀는 원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의 타락으로 비롯된 존재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랐던 것이다. 어쨌든 그럼으로써 칼빈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악의 기원을 돌리지 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마니교와 같은 이원론을 부정했다.[63]

토마스아퀴나스는 "천사의 죄는 교만이었고, 그 동기는 위대해 지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반역의 우두머리는 가장 뛰어난 천사였다고 간주될 수 있고, 그가 다른 천사들을 죄짓도록 강요했다"[64]고 서술했다.

B. 창6: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논쟁

마귀의 존재의 기원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이 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인가 아니면 경건한 셋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사론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

62) Ibid.

63) 예영수 외, 『마귀론 이해』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p.158.

64) Summa, G.달사쏘-R.꼬지 편찬. 이재룡 외 역 『신학대전 요약』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p.85.

부분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천사론과 마귀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타락한 천사설[65]

이 학설은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이 동거하여 생긴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 영들이 지상에 귀신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창세기6:1,2,4절을 증거로 삼고 있다.

>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66]

창세기 6: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또한 "사람의 딸들"을 노아 홍수 이전의 여자들로 해석하여 천사들이 땅의 여인들과 관계하여 생긴 반천사 반인간의 거인인 네피림이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홍수가 나자 이 거인들은 파멸되었지만 그들의 영은 귀신이 되어 오늘날에도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

65) 예영수 외, pp.222-233 참조.

66) 창6:1-4.

계속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인간 남자가 되어 여자와 결혼하여 혼혈족을 생산한 결과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천사나 혹은 반인간-반천사의 혼혈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들 타락한 존재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도 없었고, 또한 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었으리라는 것이다.[67]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다와 베드로의 서한에서 천사들이 범한 죄를 언급한 것을 증거로 삼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은 위에서 말한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다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68]

위의 말씀 중에 7절의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in like manner)라는 말은 천사들이 여자들(사람과 딸들)과 성적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이러

---

67) 예영수 외, p.223.

68) 유다서 6-7.

한 괴물적인 일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수간(獸姦)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베드로도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탈타로스(Tartarus)로 보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희랍 사람들에게 탈타로스는 음부(Hades)보다 더 깊은 곳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2:4).

위의 베드로의 말은 혼혈족을 만드는 괴상한 죄를 범한 사악한 천사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설은 구약 위경(僞經)인 에녹서 15:8-12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다.

> 이제 영들과 육체로부터 태어난 거인들이 지상의 악령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지상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령들이 그들(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거룩한 파수꾼들(천사들)로부터 그들의 창조와 최초의 기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상의 악령들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악령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들 거인들의 영들은 고통을 가하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지구를 파괴하며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시장하고 목마르다. 이들 영들은 사람의 자식들과 여인들에게 공격을 가해 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과 동거했다는 것은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문화』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인들과 동침하여 불의한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들 남자들은 소위 희랍인들이 거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했다.[69]

그리고 유대 철학자인 필로(Philo Judaeus)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와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하였다. 필로는 그의 『창세기에 관한 질의 응답』(*Questions and Answers on Genesis,* 1)에서 "거인들이 천사들과 여인들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원리에서 말하느냐"(창6:4)라고 질문을 하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시인들은 지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즉 땅의 아들들이라 부른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이 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용어를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이들 중요한 사람들의 거대한 개인적인 크기를 단순히 헤이즈크(Hajk; 아르메니아 나라의 전설상의 족장)나 헤르클레스(Hercules; 그리스 신화의 강력 무쌍한 영웅)의 크기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들 거인들이 천사들과 여인들의 두 속성의 결합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천사들의 본질은 영적이나, 때때로 돌발 사태가 일어날 때는 남자의 형태를 모방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이번에도 변신하여 거인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인들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자식들이, 부친의 덕을 닮지 않고, 모친의 사악함을 닮는다면, 타락한 종족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두어라. 지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오만에 찬 멸시감 때문에,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인해 태어나지 아니하고 육신이 없는 영으로서 실체가 없는 까닭에, 모세는 때때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주었다. 또한 아마도 모세는 덕을 권고하고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훌륭하고 큰 덕을 타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으며 사악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몸 혹은 육신이라 불렀다.[70]

---

69) 예영수 외, p.224 재인용.

이 설은 저스틴 마터, 터툴리안 등이 지지하였다.

2. 경건한 셋의 후손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어느 시기엔가 천사가 인간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오직 창조주 외에는 없는 능력, 아무리 위대한 피조물에게라 할지라도 결코 부여된 적이 없는 능력을 천사들이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성질을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이다. 예수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고 했다. 이것은 부활에 임하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특징을 일컫고 있으나, 노아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이 곳에서와 아주 동일하게 "장가들고 시집가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마24:38). 그 세대에도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때, 영적인 세계에 있던 자가 인간의 사회에 침입하였다는 것 등에 대해서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천사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났던 사실을 명백히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였던 것뿐이다. 이는 전적으로 창세기

---

70) Ibid.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가르침과는 다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그들이 창조주께서 애초에 의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에 있어서 자신들의 본질마저 바꿀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만일 이 가르침이 진실이라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유일한 권한을 탈취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성질과 새로운 존재 형태를 창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38절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인자의 날" 직전에 또다시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끝날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좋아하는 여자를 골라 자신들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인간사회에 침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 천사들이 첫 날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었다면 마지막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뿐만 아니라, 만약 가르쳐지고 있는 대로 이 더럽혀진 관계의 열매로서 "네피림"(거인; 장부)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 시대의 거인은 어떻게 하여 탄생하게 된 것인가?(민13:33;신2:10,20-21). 그들도 천사와 인간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었겠는가? 따라서 창세기 6장 4절의 언질을 볼 때 "거인"은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자들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창세기 6장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기사와 가인의 계보가 나온다. 이 계보는 가인으로부터 두발가인에 이르는 칠 대에 걸쳐있는 자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 곳에 이르러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26절)는 흥미로운 설명이 붙여졌다. 가인이 고의로 아벨을 쳐죽인 사건을 볼 때 가인의 성질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가인은 포학한 사람이었는데 가인으로부터 두발가인까지 칠 대의 계보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3:6)라는 말씀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창4:23,24).

라멕의 이러한 외침은 가인의 자손들 역시 포학하고 잔인했었다는 더 없는 증거이다. 당시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홍수에 휩쓸려 멸망했던 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에 이어지는 5장은 셋의 자손들 중에 나타난 이들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다. 셋의 자손들이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가인 자손들의 특징과 아울러 당시 세상 사람들의 특색인 포악성과 비교한다면 5장의 가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점은 또한 이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가운데서도 읽을 수 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위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이 두 장(章)에는 두 가족에 관한 것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져 있다. 하나는 그들의 불경건함으로 인한 오명을 남기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간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구별은 6장에 들어오면서 곧장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2절)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아이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4절)이었다. 그들은 악한 자기 조상들의 성질을 이어받아 땅을 포악으로 가득 채워갔던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용사들"과 "네피림"(거인)을 동일한 자들로 볼 수 없다. 그 "아이가 생겨났을 무렵이나 혹은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지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당시에나 그 이후에도 네피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기자가 이 곳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 "용사"가 있었을 무렵에 "거인"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지방에 '거인'이 있었으나 '거인'은 그 당시 그 지방에서만 태어났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세계의 여러 곳에서 대단히 키가 큰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유전자의 영향이다. 창세기 6장은 그 당시 그러한 자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유다서 7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하게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갔다"고 쓰여져 있다. 이 번역이 정당하다면 육욕에 이끌려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번역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저희(자신이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와 같은 모양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갔던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죄성이 깊은 그들의 기질에 그대로 들어맞는 음란한 행위였으나, "살과 뼈가 없는"(눅24:39)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천사들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육의 몸을 갖지 않는 한 육욕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 다만, 마귀에게도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육욕보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는 합당치 않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를 노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소를 떠났던 것이다.

사람이 귀신(범죄한 천사들)에게 붙들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성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하여 귀신이 사람의 모습을 취한 예는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적인 욕망을 추구해가도록 인간을 부추겨 나간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유다서에는 두려운 심판의 예로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범죄한 천사들, 육욕을 좇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다. 이와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2장에는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의 예로서 들려지고 있다.

창세기 6장에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던 것도 인간 때문이며,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불러들이게 되었던 것도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 천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인간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와 특권이 부여되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와 시대의 많은 보수적인 주해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창세기 6장 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71]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삶의 자세를 버리고 자신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렸으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초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 때로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특징지어지고 있다.

3. 비판

창세기 6: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인간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들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와 "경건한 셋 족속"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창세기 6:1-2,4절, 유다서 1:6-7절, 베드로후서 2:4절들과 특히 위경인 에녹서 15:8-12절을 인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다. 후기 유대 회당과 유대인 학자들, 예수 당시와 4세기까지 교회에서도 이 설을 수용했으며, 종교 개혁 시대에도 이 설은 인정되었다. 요세푸스 필로와 저스틴 마터, 터툴리안이 이 설을 수용하고 현대에서 힐(Hill) 등이 이 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천사들이 성을 초월한 영적존재로서 성적인 충동과 기능을 지니지 않으며 예수님도 천국에서 천사처럼 시집도 장가도 가지

71) 어거스틴, 제롬, 칼빈, 랑게 등은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경건한 셋 족속"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거스틴, 제롬, 칼빈, 랑게 등의 견해이다.[72] 특히 어거스틴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논박하면서 "타락한 천사의 죄는 교만이며, 사탄의 타락은 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고, 선한 천사들은 그들이 창조된 순간부터 말씀의 비전을 즐거워했다"고 가르쳤다.[73]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울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타락한 천사, 즉 마귀들의 기원과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최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사해 사본 중 "거인"에 대한 기사들이다.[74] 에녹서는 악한 천사들의 지도자인 "세미하자"(Shemihaza)가 다른 악한 천사들 200명을 유혹하여 여자들과 동거하게 하였다고 기록한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거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이들 악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두시고,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이다. 특히「거인서」에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200명만이 지상에 내려와서 동물들을 200씩 취하고, 아마도 여자들도 200명을 취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75] 여기서 창세기 6:1-4절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난 거인들과 '네

72) 『풀핏 성경 주석-창세기(상)』 pp.329-300.

73) 기독교대백과사전, p.636 재인용.

74) 사해사본들 중에는 에녹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관련 사본인「거인서」*(The Book of Giants)*이다.

75) 예영수 외, 『마귀론 이해』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p.290.

피림'은 구별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녹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위경이다. 이 위경과 다른 해석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C. 마귀의 활동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간의 대결은 칼빈에게 있어 종종 깊은 관심사가 되었다. 칼빈은 마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며, 무용(武勇)을 가진 자이며, 교활한 술책에 능숙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민첩함을 지닌 자이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전술에 노련한 자의 화신(化身)인 것이다.[76]

마귀는 세상을 속이는 자로 활동한다. 말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관장하고(갈1:6-9), 배도의 선동자가 된다(벧후2:1-2).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 예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재림 등을 부인하게 하는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더럽히는 방법으로 속이고 있다.

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를 "형제를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

---

76) 기독교강요, 1권 14장 13절.

에베소서 6장 12절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기술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마귀와 악의 추종세력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땅에서 주로 힘쓰는 것은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사야 14장 12-14절은 마귀의 목표를 분명히 지적한다. 마귀는 국가의 멸망, 도덕 기준의 타락, 인간 자원의 낭비를 위해 활동한다. 마귀는 사회 질서를 타락시킴으로써 질서가 서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자 한다. 그는 재난, 화재, 홍수, 지진, 폭풍, 전염병,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사람과 국가를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파괴적인 힘을 사용한다. 마귀의 거대한 힘에 대한 묘사는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이사야14:17)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곳은 의심할 바 없이 마귀의 감옥으로서,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너무나 선명히 그려진 죽은 자들의 거주지 또는 음부를 말한다.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교활하고도 영리하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맞서고 있다. 사람들을 죄의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감옥으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마귀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의심받도록 노력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도록 유혹하며, 온 세상이 죄의 거짓 쾌락을 탐닉하도록 유혹한다.[77]

마귀에 대하여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

---

77) Billy Graham, 『천사이야기』 편집부 역 (서울: 홍성사, 1996), pp.95-96 참조.

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고 그리스도는 증거했다. 이것은 마귀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말려들게 하고 증오를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선동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고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마귀는 본래 타락하고 사악하며 악의로 가득 찬 자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데 열중하는 그 성질은 극도로 부패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요한일서3:8)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실로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과 불의의 창시자요 지도자이며 설계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78]

D.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는 마귀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들은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악의 원리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라리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귀의 존재는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이런 이유 때

78) 기독교강요, 1권 14장 15절 참조.

문에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마귀는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79]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마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깨우쳐서 그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데 있다"[80]고 했다.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우주의 권세자'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이다. 칼빈은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81]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부주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 병역은 죽을 때에야 끝이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하자.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무엇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82]

---

79) Al Lacy, 『천사는 있다』 정동수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p.220.

80) 기독교강요, 1권 14장 13절.

81) Ibid.

82) Ibid.

"마귀는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83] 고 한 칼빈은 욥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확언한다(욥 1:12;2:6).[84] 그러므로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로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여서 조금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반항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또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사악함이 마귀를 재촉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행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마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조주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85]

---

83) Ibid., 1권 14장 17절.

84) Ibid.

85) Ibid.

E. 마귀의 최후 : 패배와 심판

마귀는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늘의 처소에서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계시록12:9-12). 그 이후에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지상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으며,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7년 환란 기간의 종말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마귀를 사로잡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이 속에 던져 버릴 것이다.

>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86]

천년이 다 찰 즈음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지만 곧 다시 패배하여 그의 악령들과 함께 오래전에 예비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거기 거할 것이다(마25:41). 칼빈은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87]고 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이미

---

86) 계시록20:1-3

87) 기독교강요., 1권 14장 19절.

패배한 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를 이 세상의 무대에서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 세계에서 제거하시고자 천사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가르친다(계시록 12:7-9).[88]

V. 천사론의 유익

하나님은 왜 천사를 사용하셔서 그의 능력을 보이시며, 믿는 자들의 안정을 제공하시며, 그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시는가? 칼빈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천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천사들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다."[89]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이 필요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천사가'란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신다고 칼빈은 말한다.[90]

---

88) 심판에 있어서의 천사의 역할은 Ⅲ부 천사의 사역에서 불신자와 사탄 부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89)기독교강요., 1권 14장 19절.

90) Ibid.

구체적으로 천사에 대한 믿음의 유익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천사들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91]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과 적들, 또한 너무 많은 해로운 것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해, 만약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자신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칼빈은 여호와의 순전한 약속인 그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제기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약속을 받고서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시121:1) 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92]

만약 우리가 의심한다면 이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시지 않으며, 그러기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인애 가운데 자신을 대신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다면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의 선포"인 성경은 죄인을 부

91) Ibid., 1권 14장 11절 참조.

92) Ibid.

르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주요"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례와 성만찬 같은 성례전들은 어떠한가? 어떤 면에서 이것들은 은혜의 "부차적"인 수단이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할 때 아마도 성례전들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러한 부차적인 도움들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례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친히 성례전들을 은혜의 수단들로 제정하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

천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적들의 능력 때문에 우리 자신이 대단히 왜소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된다.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의심들이 과거에 일어났는가를 칼빈은 보여주고 있다.[93] 아람(시리아)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보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에워싼다. 이러한 병거들을 보았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들이 이러한 엄청난 적들에 대항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엘리사에게 질문한다. 그때 엘리사는 기도했고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된다. 사환은 둘러있는 산들이 불 말과 불 병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제야 그는 선지자의 말의 진리를 알게 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94]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93) Ibid.

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의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 수백만 아니 그 이상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 보살피고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95] 천사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2.천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일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즉 천사는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에 보편적인 개입과 특별한 관여, 그리고 영속적 관여를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하나님은 오직 일종의 일반적인 감독만을 행사하시는데 창조와 역사는 이미 이들 안에 내재된 힘에 따라 계속적인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신론을 부정하게 한다. 따라서 천사의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세계와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작동해 놓은 절차에 따라 만물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신론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천사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 즉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만물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지나가는 모든

94) 열왕기하 6:16.

95) 시편 34:7.

것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 사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과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에 대한 좀 더 건전한 견해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이고 유신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은 정말 큰 유익이다. 천사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다.

3.오직 인간에게만 구원이 있고, 인간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보여준다.

천사들은 종족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창조되었고[96],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타락해서 악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래의 거룩한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 마귀나 악령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유황불 못에 떨어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인류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지리적인 조건으로 피부색이나 언어, 풍습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런 차이는 후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 혈통을 타고난 한 사람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한 혈통에서 출생함으로 날 때부터 유전 받은 죄의 성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다고 불평할 수 있다. 특별히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현세대에 아담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계의 존

96) 김호식. p.190.

재들, 즉 천사에게는 전혀 허락하시지 않은 구원의 혜택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불평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다. 대속의 혜택권에서 제외된 천사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볼 때 대단히 신비하고 기이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97]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장차 이루어질 이 구원에 관해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기는 했으면서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며 언제 성취될 것인지를 알지 못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천사와 비교해서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4.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 순종, 봉사, 섬김, 충성 등을 배울 수 있다.

천사들의 임무에 관한 영역은 하늘과 땅의 양 측면에 걸쳐져 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 분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천사들의

---

97) 벧전1:9-12

임무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시편 103:12-21). 단 한 천사도 침묵하고 있지 않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계시록4:8)이라는 표현처럼, 그들의 찬양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 찬양의 내용 속에는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이사야6:3).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과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계시록8:2,3). 또한 지상에서 구원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자녀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즉 신자들의 신체적 보호 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천사들은 주님의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선포했고, 광야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을 수종들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였고, 승천하실 때에도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구원이라는 고귀한 열매를 맛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을 받들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충성을 본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VI. 결 론

구약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천사는 단순히 천상에서 하나님을 시중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의 주된 사역은 첫째,

사신의 역할, 즉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천사 사역의 두 번째는 구원사역이다. 즉 위기에 직면한 연약한 인간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사역은 넓은 의미에서 신적 사역을 대리하는 것이다. 즉 천사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자", 곧 역사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 전권대사 내지 대리자이다.[98]

신약에서도 "주의 천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일을 행한다. 부활절 이후의 기사에서 주의 천사는 사도들을 옥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며, 헤롯을 심판한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천사는 부득불 신적 형상과 인간적 형상 그리고 고유한 천사의 형상을 갖는다.[99]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은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바 있다.[100] 이것은 비록 사람들이 천사들에 관해 추론하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진술되고 있는 "참되고, 확실한" 것들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도한 또 하나의 의미는 천사에 관한 논의가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이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천사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신이

---

98) 김재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 『조직신학논총』. 한국조직신학회, 1996. pp.10-11 참조.

99) Ibid.

100) 기독교강요, 1권 14장 4절.

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들의 수호자가 되며, 성도들의 순종을 함양시키고, 정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신의 역할을 제외한 모든 역할들은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사신의 역할이 바뀐 이유는 성경시대에 있어서 사신들의 역할은 구원 역사의 사건들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일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오늘날에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 보호하거나, 용기를 북돋우거나, 확증하는 등의 역할 - 이제 더 이상 구원 역사의 사건들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것에는 필요치 않게 된다. 성경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 그 역할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사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이거나 도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후 개신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천사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그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가 무대 중앙을 점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언제나 그리고 단지 "무대 뒤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바 천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천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천사의 사역과 활동,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성도의 영적인 삶에 더욱 큰 힘

이 될 것이며, 확신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들의 도움을 인식함으로써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AlLacy . 정동수 역 『천사는 있다』.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Bandsta. Adrew J. 류호영역, 『천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서울: 은성, 1996.

Billy Graham . 편집부 역 『천사이야기』 서울: 믿음의 글들, 1996.

Calvin. John『기독교 강요』.상권 제1부 14장.

Currie. J. B. . 조대희역. 『천사들』 서울: 전도출판사, 2001.

Tomas Aquinas.『신학대전』.제1부 5장 천사.

Unger. Merrill F. 『성서적 마귀론』.정학봉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0.

고덕신. "유대적 기독교의 천사 기독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81.

김재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 『조직신학논총』. 한국조직신학회, 1996.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8).

김호식.『천사론 : 하나님의 사역자』.서울: 한글, 1998.

예영수외 4인.『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서울: 은성, 1998.

원세호. 『복음적 천사론』.서울: 국제신학연구소.

이나가키 료오스케.『천사론』.김산춘역, 서울: 성바오로회단, 1999.

최근환.『천사는 이렇게 활동한다』.서울: 홍익재, 1994.

폴핏 성경 주석-창세기(상).